

우리는 어떤 식품을 먹고 있나?

유전자조작 식품 위해성 잇따라 제기, 인체·생태계까지 무너질 수도
우리 농산물 안전성 뛰어나, 수입 농산물 검역 철저히 해야

■ 국중성/ 전북 익산시 여산면

그 동안 우리는 농약이나 중금속이 인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물질로만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 보다도 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는 것이 있었으니 유전자 조작식품이 바로 그것이다. 유전자 조작 식품이 우리의 건강에 얼마나 유해한 것인지 그동안 지면을 통하여 알려진 바를 몇 가지 요약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임산부가 유전자변형(GM) 식품을 먹었을 때 태아가 위험해질 수 있다. 유전자 변형식품이 인체에 해롭다는 연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심각한 반응이 각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유전자 조작 콩이 쥐의 간과 췌장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서를 냈고,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허파에 손상을 준다는 결과가 나오자 그동안 추진해 온 유전자 조작 완두콩 개발 계획을 포기했다 하였고, 미국의 몬산토라는 다국적 곡물 기업에서는 유전자 조작 옥수수를 먹인 쥐의 콩팥이 작아지고 적혈구가 증가했다는 비밀 보고서가 폭로되기도 했다는 것이다<한겨레신문, 2006.1.10>.

1973년 미국에서 유전자 조작 실험이 성공한 이후 식품 생산에 이용된 것은 1990년대부터다. 알려진 바로는 저장성을 강하게 만든 토마토, 제초제에 강하게 육종된 옥수수, 빨리 크는 미꾸라

지 등을 비롯하여 만들어진 것이 동물류가 150여 종이고, 식품류가 20여종이 된다 하며, 국내에서도 슈퍼 미꾸라지를 개발해 냈고 감자나 벼 등도 개발 중이라는 것이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콩은 96년 현재 31%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미국산 콩은 97년만 해도 162만톤에 이른다 함이고 브라질에서는 유전자 조작 땅콩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사례가 있었고 미국에서는 해충이나 농약의 저항성을 높여 만든 농작물의 유전자가 잡초에 전달되어 슈퍼 잡초가 생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 등 유전자 조작으로 인하여 인체는 물론 세계의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국민일보, 1998.10.9>.

유전자가 조작된 옥수수의 꽃가루에서 나오는 독소가 곤충을 죽일 수 있다는 것과 그 옥수수는 뿌리에서 독소가 나와 이것이 분해되지 않고 234일 동안 독성이 유지된다 하였고, 해충의 피해를 덜 받게 만들었기 때문에 앞에서 독성물질이 나온다고 했다. 또 이 꽃가루가 묻은 것을 먹은 나비류 일종의 반 이상이 죽었다고 한다. 이렇게 개발된 Bt옥수수는 병해충에 강해서 미국과 영국에 널리 재배되고 있다<동아일보, 1999.12.3>.

바야흐로 세계의 농산물이 무역개방의 물결을

타고 몰려오고 있는 즈음이다. 이런 가운데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유무를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겠는가? 그동안에도 국내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많은 농산물의 국적을 알 수 없이 만연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

‘부지불식간 섭취’로 우리 몸 혼란

옛부터 임산부에게는 걸음걸이에서부터 언행 하나까지도 바르게 함을 이르렀고, 과실 하나에도 비틀리고 못생긴 것은 함부로 먹지 말고 제대로 생긴 완전한 것을 먹게 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지금 생각하면 과학적인 근거는 없었을 지라도 먼 조상 때부터의 지혜 있는 교육을 후세에 전승하여 왔던 것 같다.

그렇게 순수한 자연식물을 먹던 시대에도 그런 이론을 실천하게 했던 바이다. 그런데 오늘날 과학이 사람까지 만들어내는 세상이 되다보니, 인위적으로 식물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지구에 없던 식물까지 만들어 내는 현실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먹고 괜찮을까 우려 하면서도 우리는 색깔 좋고 큰 것으로 골라서 먹어왔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있다는 증거가 밝혀진 사실을 접하고 보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지난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는 80여 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생물 안전성에 대한 회의가 열렸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노르웨이 유전공학 연구소에서 확인한 바 있는 유전자조작 농산물에 위해성이 있다는 것을 제기하고 규제를 촉구했다고 한다. 이의 증거로 필리핀의 유전공학 옥수수 농장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열병과 호흡기, 장, 피부질환 등에 시달리고 있다는 실증을 밝혀 낸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의문을 가지고 있던 일이니만큼 새삼 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유전자 조작된 식물의 꽃가루만 호흡을 했다는 데도 그러한 질병을 앓게 되었다 한다. 하물며 우리는 그동안 콩이며 옥수수와 각종의 과채를 알게 모르게 직접 몸으로 먹어왔으니 우리 몸 안의 생태계는 혼란 속에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확대 해석인지는 모르겠으나 전에 없이 많아 보이는 기형적 신생아와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면 신경성이라는 애매한 진단이라든지 여타 증후군 등을 생각하면, 우리 몸 안의 정상체계가 그런 유형의 유전자 조작식품을 먹어온 데서 나타나는 흐트러짐의 결과가 아닌지 의심이 든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창조되어질 때는 그 몸에 맞게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이 갖추어 졌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이를 원형대로 이용하지 않고 인간들의 장난질로 하여 그 질서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다. 비단 이뿐이 아니지만, 이미 유전자 조작 농산물이 인체에 유해하다고 밝혀진 사실을 들어 당국에 건의를 했다. 국민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망치 말고 방안이 있기를 바란다 고 말이다.

반면에 농약은 어떠한가? 제도적인 거름 장치가 엄밀해서인지 아직까지는 자살자를 제외하고는 농약으로 생산된 일반농산물을 먹고서 문제가 됐다는 사례는 한번도 없다는 것이다.

농약에 관한 일본의 저명한 학자인 竹松哲夫 교수에 따르면 농약은 토양과 물과 식물체내에서 분해 소멸되지 않으면 제도상 등록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초제가 토양에 들어가 썩어 분해되지 않는다면 전 세계의 논과 밭은 1~2년 내에 작물도 잡초도 살지 못하는 사막이 되고 만다. 그러나 농약이 썩어 분해되어 없어지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농경지로서 유지되며 해마다 작물과 잡초가 자라고 있다는 것이다. 